

사문 내용별 선지 정리

평가원 기출 선지 모음집

이름 :

사문 1단원 선지 정리

자연 현상 vs 사문 현상

〈Comment〉

- 1)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의 주어가 누구인지 찾아야 한다. 물론, 주어는 밑줄 친 부분에 없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서술어의 생략된 주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만 하지 말자.
- 2)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밑줄 친 곳이 자연 현상인지 사문 현상인지에 아는 것에 대한 감을 익혀야 한다.

(1) 자연 현상과 사문 현상의 공통점

-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1409)
-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1611)

(2) 자연 현상의 특징

-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1411)
- 사문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1506)
-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1506)
- 사문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다. (1509)
- 인과 법칙을 따른다. (1509)
- 사문 현상에 비해 예측이 용이하다. (1509)
- 물가치적이다. (1511)
- 동일 조건하에서 동일 현상이 발생한다. (1809)

(3) 사문 현상의 특징

-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1409)
- 개연성으로 설명된다. (1409)
- 특수성보다 보편성이 강조되지는 않는다. (1409)
- 특수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1411)
- 자연 현상이 원인이 되어 사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모기 증가 → 방역 관리) (1411)
-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1411)
- 특수성을 지닌다. (1506)
-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 (1506)
- 가치 함축적이다. (1509)
-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1711)
-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 (1809)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Comment〉

- 1) 상호 (기, 상), 지배 (기, 갈)와 같이 하나의 단어가 서로 다른 관점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단어가 아닌 문맥 위주로 제시문과 선지를 보아야 한다.
- 2) 비판에 관한 선지가 나오면 어느 관점이 어느 관점을 비판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1) 거시적 관점

-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 (1409)
- 가족 제도를 사회 구조와 연관하여 본다. (1506)
-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강조한다. (1509)
-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1709)
-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체계를 중시한다. (1909)

1-1) 기능론

- 학교 교육이 사회적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다. (1406)
- 사회의 부분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사회를 유지시킨다. (1406)
-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합의된 가치가 존재한다. (1406)
- 혼인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및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의례이다. (1409)
-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1409)
- 교육은 사회 자체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1409)
- 집단 생활에 필요한 사회 규범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학습시킴으로써 그들의 동질성을 강화하여 사회를 존속시킨다. (1409)
- 학교는 그 사회가 공유하는 지배적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데 기여한다. (1409)
- 가족이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1411)
- 핵가족은 산업 사회의 중요한 하부 체계이다. (1411)
-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을 통한 가족 역할의 재구성을 강조한다. (1411)
-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위해 가족 내의 성별 분업이 필요하다. (1506)
- 가족 구성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 (1506)
- 성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분담하는 것은 사회적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509)
-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1509)
-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학업 성취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1509)
- 교육을 전체 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한 지배적 가치의 전파 수단으로 간주한다. (1509)
- 교육의 인재 선발 기능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1509)
- 학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다. (1511)
- 교육의 인재 선발 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본다. (1511)
- 교육이 계층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본다. (1511)

- 사회가 요구하는 지적, 도덕적, 신체적 특성을 갖추도록 어린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1609)
- 교육을 그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범을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1609)
-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 수행 간의 부조화에 의한 것이다. (1609)
- 가족 문제의 원인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약화이다. (1611)
-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한다. (1611)
- 다양한 제도들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주목한다. (1706)
-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직업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1706)
-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1706)
- 사회가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이룬다고 본다. (1709)
- 학교 교육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1711)
-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1809)
-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역할 수행 체계가 무너지고 구성원 간 상호 의존성이 약화되면 세대 갈등이 발생한다. (1906)
-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906)
- 교육을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체계의 내면화 과정으로 본다. (1906)
- 교육이 계층의 재생산을 억제한다고 본다. (1906)
- 교육과 위계적인 직업 구조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 집단 간의 대립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 (2009)
-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1)

1-2) 갈등론

- 한 사회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다. (1406)
- 사회 구조나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1406)
- **학교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및 고착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1409)**
-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중,상류층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1409)
- 다른 사회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족 또한 구성원 간 권력 관계의 장임을 강조한다. (1411)
- 가족이 사회 변동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강조한다. (1411)
- 가족은 구성원 간의 권력 관계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강화할 뿐이다. (1506)
- 가족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 (1506)
- 불평등한 가족 관계가 가족 구성원의 사회화를 통해 고착화된다. (1506)
-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의 합의를 통해 형성된다. (1509)
- 사회화가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1509)
-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1509)
- 학교 교육 내용에 계층 간 유불리가 존재함을 강조한다. (1509)
- 교육을 개인의 사회 이동 수단보다는 계층적 지위의 고착화 수단으로 본다. (1509)
- 사회의 변동을 중시한다. (1511)
-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한다. (1511)
-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606)
-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고착화된 불평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611)
- 교육은 지배 이념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1706)
- 학교 교육을 통해 지배 집단의 가치를 주입하고 있다고 본다. (1911)
-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2) 상징적 상호 작용론 - 미시적 관점

- 혼인은 부부간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의 역할을 재구성해 가는 사회 과정의 출발점이다. (1409)
- 인간의 능동적 사고와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강조한다. (1409)
-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와 칭찬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 (1409)
-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가족의 생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을 강조한다. (1411)
-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의미와 해석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한다. (1506)
-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가정한다. (1506)
- 상황 정의를 매개로 한 인간 관계에 주목한다. (1506)
-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부여를 중시한다. (1509)
-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중시한다. (1511)
- 사회 규범은 대다수 구성원이 특정 행위에 규범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된다. (1806)
- 사회 구성원들이 행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기존 규범은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규범이 나타난다. (1806)
-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1906)
- 개인들이 구성해내는 주관적 생활 세계를 중시한다. (2006)
- 교육 주체들이 교육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불일치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3)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모두의 공통점

-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2006)

사회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Comment〉

- 1) 최근에는 이 부분이 양적 연구 결과 분석으로 나오므로, 개념을 묻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
- 2) 양적 연구 결과 분석에서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묻는 선지는 항상 있으므로 양적 연구 방법 선지를 위주로 보자.

(1) 양적 연구 방법

- 사회 문화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1406)
- 행위 주체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도가 배제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1406)
- 행위의 동기보다는 행위 자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1406)
-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1406)
-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성을 분석한다. (1409)
- 주로 연역적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1409)
- 연구 대상자의 동기나 의도를 객관화할 수 있다고 본다. (1409)
-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가치나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411)
-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 현상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 (1411)
-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1411)
-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모집단, 표본 집단의 표현이 주로 등장함 (1506)
cf. 실험-통제 집단은 실험법에만 해당
-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한 일반화가 용이하다. (1509)
- 연구 대상의 주관적 가치를 측정하여 규칙성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1606)
- 연구 주제 설정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1611)
- 가설 설정에서 가설 검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연역적 과정이고, 자료 수집에서 결론 도출로 이어지는 과정은 귀납적 과정이다. (1706)
-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물을 수 있다. (1711)
- 양적 연구 과정 : 주제 설정 → 선행 연구 검토 → 가설 설정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 일반화
- 양적 연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치 개입이 필요한 단계 : 주제 설정,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일반화

(2) 질적 연구 방법

-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 내는 생활 세계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1406)
-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반하여 사회 문화 현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1406)
-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가 인식 주체에 의해 다르게 규정된다. (1406)
- 직관적 통찰을 통해 주로 **인간 행위 자체보다 인간 행위의 이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1406)
-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방법이다. (1409)
-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 양적 연구에 비해 낮다. (1409)
-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1411)
-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1411)
-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 행위의 의미를 직관적 통찰을 통해 파악한다. (1611)
- 생생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낮은 자료 수집 방법들을 사용한다. (1611)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
1차 vs 2차	1차 자료를 얻는 데 사용된다.				2차 자료
양적 vs 질적	주로 양적 자료		주로 질적 자료		둘 다
실제성 높은 순서	3	4	2	1	
자료 수집 통제 순서	2	1	3	4	

〈1509〉

-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와 언어를 매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에 용이하다.
-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비해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 질문지법은 참여 관찰법에 비해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
- 자료 수집 방법 모두 조사 대상자의 동의 확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는 연구 윤리의 문제이다.
- 자료 수집 방법 모두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유리하다.

〈1511〉

- 문헌 연구법은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 질문지법은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에 사용된다.
- 실험법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1606〉

- 참여 관찰법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통제가 어렵다.
- 문헌 연구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장 적게 받는다.

〈1609〉

- 실험법은 연구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와 조작을 강조한다.
- 문헌 연구법은 기존 연구의 경향성 파악에 용이하다.
-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1711〉

-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실험법과 질문지법에 비해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1806〉

- 자료 수집 방법 모두 연구 대상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연구 대상과 연구자 간 신뢰감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로 해석해야 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811〉

-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한다.

〈1906〉

-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 면접법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 용이하다.

〈1911〉

-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2009〉

-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계량화가 용이하다.
-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참여 관찰법은 자료의 실제성이 가장 높다.
-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문맹자에게 사용하기에 불리하다.
-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 참여 관찰법은 면접법에 비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일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2011〉

- 질문지법은 참여 관찰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이다.

***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실험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다. (1206 - 정답률 18%)**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

1.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요즘 트렌드는 아니지만 교육 과정 내에 있는 내용임)

(1) 객관적 태도

- 사회 문화 현상에 관련한 사실과 가치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 (1406)
-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현상이 가진 사실에만 근거하여 파악해야 한다. (1409)
- 연구자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주관적인 가치와 편견을 배제하려는 태도이다. (1409)
- 제3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1409)
- 현상을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태도이다. (1411)
-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시 주관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 (1711)

(2) 상대주의적 태도

-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시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1406)
- 상대방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1409)
- 연구자는 사회 문화 현상 연구에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411)
-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중시한다. (1411)

(3) 개방적 태도

-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 (1406)
- 사회 문화 현상 연구에서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1409)
- 연구자가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확정하려고 고집하기보다는 잠정적 결론으로 보고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타당한 주장이나 결론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1411)
-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1411)
-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1711)

(4) 성찰적 태도

-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연구자 스스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 (1406)
- 연구자가 연구 절차나 방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409)
-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중시한다. (1411)
- 사회 문화 현상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면의 원인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711)

2.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

- 연구 대상에게 연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1506)
- 연구 대상에게 면접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1506)
- 자료를 분석할 때 연구자가 가치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는다. (1506)
-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 연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1506)
-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1606)
- 면접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1606)
- 연구 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1606)
- 연구 결과 발표 시 연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1606)
- 자료 분석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조작이 이루어졌다. (1606)
-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았다. (1609)
-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조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지 않았다. (1609)
- 연구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 (1611)
-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1611)
- 다른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611)
-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의적인 자료 선별을 하였다. (1611)
-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1706)
- 다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1706)
- 사생활 관련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였다. (1706)
-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성별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았다. (1706)
-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 수집을 하였다. (1806)
- 자료 분석 단계에서 고의로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1806)
- 결과 발표 단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분석 결과의 일부를 은폐하여 발표하였다. (1806)
- 수집한 자료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유출하였다. (1806)
-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1811)
- 연구 의뢰자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여 분석하였다. (1811)
- 연구 자료를 왜곡하여 분석하였다. (1811)
-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1811)
- 연구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다. (1811)
-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2106)
-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2106)
-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켰다. (2106)
- 연구 결과에 대한 반증 가능성을 수용하지 않았다. (2106)
-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2106)

사문 2단원 선지 정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1. 1차적 사회화 기관 :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 가족, 또래 집단

2. 2차적 사회화 기관 : 전문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 대학, 난민 지원 센터, 신문, 산업체, 방송사, 직업 훈련소, 야간 대학, 축구 협회, 방송사, 기업, 미술 대학, 회사, 교육 연수원, 요리 학원, 공연 관람 동아리, 대학 연극학과, 청소년 수련원, 건축학과, 인터넷 쇼핑몰, 연기 학원, 증권사, 의과 대학, 기관 연수원, 영화 제작사, 예술 대학원, 광고 회사

3. 공식적 사회화 기관 :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대학, 직업 훈련소, 야간 대학, 미술 대학, 교육 연수원, 요리 학원, 대학 연극학과, 청소년 수련원, 건축학과, 연기 학원, 의과 대학, 기관 연수원, 예술 대학원

4.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 사회화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난민 지원 센터, 신문, 가족, 산업체, 방송사, 축구 협회, 방송사, 기업, 회사, 공연 관람 동아리, 인터넷 쇼핑몰, 증권사, 또래 집단, 영화 제작사, 광고 회사

5.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 (영화 배우의 배역 → 지위 X - 2009)

(1) 귀속 지위 : 막내딸 (2006), 연예인 2세 (1811), 아들 (1909), 청소년 (2011)

(2) 성취 지위 : 자원봉사자 (1709), 아버지 (1706), 감독 (1606), 남편 (2006), 최고령 사원, 직장 동료 (1409), 화가, 담임 교사 (1411), 연극 배우, 집행 위원장 (1711), 가수 (1811), 영화 배우 (2009)

6. 역할 갈등 O, X 사례 (지위에 따른 역할과 역할 간의 갈등이어야 함)

(1) 역할 갈등 O 사례

- 막내딸의 면접일과 해외여행 기간이 겹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2006)
- 부부로서 설거지를 같이 하는 남편의 역할과 설거지를 같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역할 간 갈등 (1406)

- 교사로서 받는 교육연수원에서의 연수와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입원으로 인해 연수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간 내적 갈등 (1506)
- 독립 영화제의 홍보에 힘쓰지, 영화의 홍보에 힘쓰지 고민 (1711)

(2) 역할 갈등 X 사례

- 갑은 더 큰 무대로 진출할 것인지, 안정된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 (1709)
-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1706)
- 향후 거취를 고민하던 갑은~ (1606)
- 방송 출연을 원했던 남편과 달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갑의 남편과의 갈등 (2006)
- 성과급 차등 지급으로 인한 구성원 간의 갈등 (1409)
- 화가가 되기를 원했던 갑은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 않아 마음이 복잡 (1411)
- 갑은 부모가 미술 대학 진학을 허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동양학과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1411)
- 진로 문제로 부모와 말다툼을 하였다. (1406)
-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 남편과 갈등 (1806)
- 요리사의 꿈을 실현하고자 요리 학원을 다니지만 아내의 반대로 학원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 (1506)
-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출연 제의를 받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 (1611)
- 가수를 그만두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배우로 전향해야 할지 고민 (1811)
-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병원장의 아들로서 가업을 잇기를 바라는 부모님께 어떻게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 (1909)
- 외국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사이가 멀어질까 봐 고민 (1909)
- 사범 대학을 계속 다닐지 말지 거듭 고민 (1906)
- 철학자 갑이 다른 입장을 가진 철학자들과 갈등을 겪음 (1911)
- 배역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촬영이 끝난 후에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음 (2009)
- 장기 휴가에 대해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 (2011)
- 자신의 퇴직에 대해 부모님과 갈등 (2011)

※ 내집단 : 현재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있는 집단

※ 사회 집단 :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 함

※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 내집단 : 해당하는 주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함 (그의 부모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음)

※ 역할에 대한 보상 (제재) 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제재) 이 맞는 말임.

-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제재) 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예기 사회화, 재사회화에 밀착이 그어져 있으면 그 사례가 정말로 사회화가 맞는지 확인해야 함

- 팀장 진급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팀장 연수는 재사회화이면서 예기 사회화임 (1409)
- 예비 부모 교실과 신입 사원 연수는 예기 사회화임 (1806)
- TV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은 재사회화가 아님 (1811)
- 혼자서 사색하는 것은 예기 사회화가 아님 (1911)
- 여러 분야의 서적을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은 재사회화로 보기 어려움 (1911)
- 소방공무원 채용은 예기 사회화가 아님 (2006)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1) 공동 사회

- 구성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1406)
- 구성원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성된 집단이다. (1411)
- 공식 조직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전인격적인 인간관계로 주로 나타난다. (1411)
-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1611)
- 법적 제재보다 관습적 제재가 주로 적용된다. (1711)
- 본질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1906)
- 본질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1911)

(2) 이익 사회

- 구성원들의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1506)
- 구성원들의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1606)
- 결합 의지에 따라 구분할 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 (1611)
-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조직은 모두 이익 사회로 볼 수 있다. (1611)
- 결합 의지에 따라 분류할 때, 구성원의 선택 의지에 의해 결합한 집단이다. (1711)
- 선택적 의지에 의해 형성되는 이익 사회이다. (1811)
- 구성원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이다. (2006)

(3) 1차 집단

- 친밀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1709)
- 접촉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구성원들이 대면 접촉을 통해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집단이다. (1711)
- 법적 제재보다 관습적 제재가 주로 적용된다. (1711)
- 전인격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1809)
- 구성원 간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전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집단이다. (1906)
- 1차 집단에서의 인간관계는 전인격적이다. (2009)
- 비공식적 제재가 일반적이다. (2009)

(4) 2차 집단

- 형식적,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1706)
- 구성원 간 수단적 만남과 간접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1709)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관계가 주로 나타난다. (1711)
- 관습적 제재보다 법적 제재가 주로 적용된다. (1711)
- 과업 지향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난다. (1909)
- 공식적 제재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1909)
- 모든 2차 집단은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2009)

(5) 자발적 결사체

- 선택 의지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1406)
-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1411)
-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1411)
- 자발적인 동기로 결합된 집단이다. (1611)
-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성된다. (1706)
-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공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1706)
-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공통 관심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이다. (1711)
- 공통의 목표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된 집단이다. (1906)
-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결성한 집단이다. (1911)
-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속한다. (1911)
- 사회 다원화에 기여한다. (1911)

(6) 공식 조직

- 공식적 조직 목표와 명시적 규범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이다. (1411)
- 과업 달성을 중시한다. (1606)
- 비공식 조직에 비해 공식적 규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1606)
- 공식적인 목표와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 (1611)
-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가 적용된다. (1611)
- 비공식 조직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크고, 구성원이 이질적이다. (1706)
- 비공식 조직에 비해 구성원에 대한 공식적 통제의 정도가 강하다. (1706)
- 과업 달성을 위한 조직이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 원리가 적용된다. (1709)
- 기업의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1709)
- 공식적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한다. (1709)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지위와 역할이 명확한 조직이다. (1906)
-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된 집단이다. (1909)
-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1911)
- 과업 지향적인 집단이다. (1911)
- 구성원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이다. (2006)
- 주로 공식적 규범을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한다. (2006)
- 목표가 명확하고 구조화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 조직이다. (2009)

(7) 비공식 조직

- 사익을 추구한다. (1409)
- 비공식 조직의 성립은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한다. (1606)
- 친목 도모를 중시한다. (1606)
- 공식 조직 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취미, 관심사 등에 의해 형성된 조직이다. (1611)
-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다. (1611)
- 공식 집단을 기반으로 출현하여, 공식 조직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706)
-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사회 조직은 비공식 조직에 속하지 않으나,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다. (1706)
-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자발적으로 결성한 것이다. (1709)
- 과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909)
-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을 전제로만 존재하며,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파벌을 조성하는 역기능도 있다. (2009)
-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2009)

(8) 관료제와 탈관료제

-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표준화된 업무 처리 방식을 통해 안정된 조직을 운영한다. (1406)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 담당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쉽다. (1406)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1406)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구성원 간 업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 (1406)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업무 부서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해체시킨다. (1406)
- 탈관료제는 경력보다 업무 성과를 고려한 차등적 보상을 중시한다. (1411)
-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지향한다. (1411)
- 탈관료제는 의사 결정 권한의 집중보다 분산을 지향한다. (1411)
- 관료제는 조직의 운영에서 유연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 (1411)
- 탈관료제는 규약에 따른 과업 수행보다 창의적 과업 수행을 중시한다. (1411)
- 관료제는 무사안일주의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1511)
- 탈관료제는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1511)
-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 공식적 통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1511)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상향식 의사 결정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더 중시된다. (1511)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 결정권이 분산되어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가 더 용이하다. (1511)

(9) 기출 문제 속 사례

- 1406: 환경 단체, 대학 내 동아리, 등산회
- 1411: 시민 단체
- 1506: 고등학교, 교내 댄스 동아리, 가족
- 1509: 학생회, 체육교육과
- 1511: 또래 집단, 학교
- 1606: 대학 내 홍보 부서, 대학, 종친회
- 1609: 환경연대, 학교 내 연극 동아리
- 1709: 기업의 노동조합
- 1711: 이익 집단
- 1806: 기획사의 봉사 동아리, 방송국, 국세청, 대학교 총학생회, 연예인 야구단
- 1809: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 기획사, 기부 단체
- 1811: 교육청, 대학원, 사내 야구 동호회, 청소년 봉사 단체, 학급
- 1906: 법학 전문 대학원, 시민 연대, 시민 연대의 야구 동호회, 음악 학원
- 1911: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 단체
- 2011: 평론가 협회, 대학 연극영화학과
- 2106: 유치원, 게임 동호회, 동창회, 대학교 학과 내 독서 소모임, 출판인 협회, 미술 학원, 정당, 환경 운동 단체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 사회 실재론

- 개인 행위의 의미를 사회 속에서 찾는다. (1406)
- 인간의 행위를 사회적 조건에 의해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본다. (1406)
- 사회 속의 개인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의무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본다. (1406)
-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다. (1409)
- 사회 구조는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 (1409)
-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 (1506)
- 개인은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1506)
- 사회가 개인의 총합 이상이라고 본다. (1506)
- 사회가 발전하면 개인도 발전한다고 본다. (1506)
-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1506)
- 사회 제도의 개혁을 중시한다. (1506)
-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1509)
-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1509)
- 범죄율은 개인의 범죄 행동의 합으로 구성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이다. (1511)
-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1511)
- “축구팀의 역량은 선수들의 개인기보다는 조직력에 의해 결정된다.” (1511)
- 개인의 능동성보다 사회 규범의 구속성을 중시한다. (1606)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변화보다 제도적 개입을 강조한다. (1606)
-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1609)
- 개인은 집단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 (1609)
- 사회 현상은 순수한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의 논리를 찾아서 이를 설명해야 한다. (1611)
-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고유한 실체라고 본다. (1611)
-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1611)
- 사회 정책으로 인간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1706)
-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찾는다. (1706)
- 사회 구조가 개인에 대하여 불가항력적 존재라고 본다. (1706)
-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 그 이상으로 본다. (1706)
-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 (1709)
-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1709)
- 개인은 집단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1709)
- 사회화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위 양식을 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다. (1711)
- 사회 속 개인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경우는 없다. (1711)
- 조직의 규모는 조직의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고, 개인은 이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806)
- 개인은 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살아야 한다. (1809)
- 각 개인의 자유 의지는 집단 규범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발현된다. (1809)
- 개인의 의식과 행위는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1809)
- 사회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우위에 있다. (1809)
- 제도란 개인의 의식 외부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1811)
- 사회가 개인들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1811)
- 사회 통합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06)
- 개인의 행위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사회 구조적 상황의 산물이다. (1909)
- 사회 속 개인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1909)

-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본다. (1909)
-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 제도의 힘을 중시한다. (1909)
-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1911)
-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날로 심해지면서 결혼 시기를 놓친 사람이 늘어난 결과이다. (1911)
- 주택 가격 폭등으로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이다. (1911)
- 우리는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2006)
- 개인의 속성은 사회의 속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2006)
- 전류는 사람들을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외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2009)
- 개인은 오직 사회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2009)
- 사회 현상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2009)
-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2106)
-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2106)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 사회의 제도 개혁을 강조한다. (2106)

(2) 사회 명목론

- 개인의 이익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1406)
- 개인의 능동성과 독립성을 강조한다. (1406)
-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1409)
-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1409)
-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없다. (1506)
-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개인이 합의하여 만든 것이 사회이다. (1506)
-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1506)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개선을 강조한다. (1506)
-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1509)
-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1509)
-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다. (1511)
- 인간의 행동과 사회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적 요인을 중시한다. (1511)
- 사회를 실체가 없는 허구적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1606)
-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1606)
- 사회에 대해 구성원의 개인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1609)
- 사회 구조가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집합한 결과라는 점을 전제한다. (1609)
-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규정하는 근원적인 규범이 존재함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609)
-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1609)
-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1609)
- 사회도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복잡한 현상도 개별 요소로 설명해야 한다. (1611)
- 개인의 자유 의지를 강조한다. (1611)
-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1611)
-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 (1611)
- 인간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1706)
- 개인의 이익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본다. (1709)
-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1711)
-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1711)
-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1806)
- 사회는 개인의 속성에 의해 그 속성이 결정된다. (1806)

- 사회의 특성은 개인적 행동이 반영된 결과이다. (1809)
- 집단 행동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표출된다. (1809)
- 개인의 정신 상태가 유일하게 관찰 가능한 대상이 된다. (1811)
-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고 본다. (1811)
- 자살률의 높고 낮음이 집단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1906)
-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사회를 연구해야 한다. (1906)
- 사회는 개인의 속성을 모두 합한 것에 불과하다. (1906)
- 사회적 조건보다 개인의 자유 의지가 인간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1906)
- 사회는 개인들 사이의 다양한 상호 작용의 총합과 동일시된다. (1909)
- 사회란 상호 작용에 의해 결합된 개인들을 지칭하는 개념일 뿐이다. (1909)
- 사회로부터의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1909)
-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이 늘어난 결과이다. (1911)
- 결혼보다 다른 개인적 가치 추구를 더 중시하여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이다. (1911)
- 사회 현상은 개인의 행위나 심리 상태로 환원된다. (2006)
-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2009)
-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2009)
-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능력을 합친 것과 같다. (2011)
-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2011)
- 선수 각자의 실력이 팀 실력을 결정한다. (2106)

일탈 행동 (아노미, 차별적 교제, 낙인)

〈Comment〉

- 1)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구분하는 문제가 20학년도 수능부터 나왔다. 각각의 특징을 구분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 2) 윤리 과목과 마찬가지로 A, B, C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 3) 평가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헛갈리는 선지는 출제하지 않는다. 가령, 차별적 교제 이론 자체가 거시적 관점인지 미시적 관점인가를 따지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1)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1409)
- 무규범 상태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1409)
-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한 사회 통제를 강조한다. (1506)
-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사회 규범의 부재를 강조한다. (1706)
- 일탈 행동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촉발된다고 본다. (1706)
-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함으로써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1811)
- 급격한 사회 변동과 전통 규범의 통제력 약화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1909)
-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으로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2006)
-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탈 행동을 야기한다고 본다 (2006)
- 일탈 행동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인식한다. (2009)

(2) 머튼의 아노미 이론

-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일탈의 근본적 원인으로 본다. (1409)
-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기회의 제공을 해결 방안으로 중시한다. (1411)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실업자들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9)
-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1706)
- 일탈은 문화적으로 정의된 열망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수단 사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 (1806)
-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의 부족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1909)
- 일탈 행동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인식한다. (2009)
- 일탈 행동 예방 방안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지지할 것이다. (2011)

(3) 차별적 교제 이론

- 비행 친구와 어울린 이후에 최초의 비행을 저지른다고 본다. (1409)
- 비행 친구와 어울리면서 그들의 가치나 태도를 배워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1409)
-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친구 따라 강남간다.” (1409)
-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1409)
- 일탈 행동도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1506)
- 단지 일탈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와 태도까지 내면화하게 된다. (1506)
- 차별적 교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강조한다. (1506)
-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의 습득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1609)
-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상호 작용 촉진을 제시한다. (1609)
-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강조한다. (1706)
-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는다. (1806)
- 일탈 행동이 비행 집단과의 교류로 인한 잘못된 사회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1809)
- 일탈 행동의 발생에 있어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1811)
- 일탈 행동의 원인을 거시적 측면에서 찾지 않는다. (1906)
 - 차별적 교제 이론 자체가 거시적인지 미시적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 말하는 일탈 행동의 원인은 일탈자와의 상호 작용이므로 일탈 행동의 원인만은 미시적 측면에서 찾는다. 일탈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과정은 객관적이므로 차별적 교제 이론에는 거시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 일탈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또한, 일탈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일탈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형성되면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1911)
-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1909)
- **일탈 행동이 사회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2009)**

(4) 낙인 이론

- 본질적으로 일탈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본다. (1409)
- 일탈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중시한다. (1411)
- 사람들이 일탈 행동을 한 사람을 일탈자로 대하면, 그 역시 스스로를 일탈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1506)
- 일탈 행동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주목한다. (1506)
-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본다. (1506)
- 지속적인 상담 과정을 통해 자아상이 새롭게 바뀐 상습 범죄자의 경우 범죄를 중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1509)
- 상호 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에 초점을 둔다. (1511)
- 일탈 행동의 구조적 원인보다는 일탈자가 되어 가는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 (1606)
- 최초의 일탈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이 이차적 일탈을 초래한다고 본다. (1606)
- 일탈 행동이라고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1609)
- 일탈 행동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1609)
-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1706)
-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1706)
- 비행을 저지른 후에 따가운 주위의 시선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자아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1706)
- 일탈 행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1711)
-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는다. (1806)
-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1906)

- 최초 일탈보다 일탈 행동의 반복에 초점을 맞춘다. (1906)
-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1909)
-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1909)
- 규범을 위반한 행동이 모두 일탈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09)

*** 낙인 이론이 아닌 것**

- 최초의 일탈을 방치하면 또 다른 일탈로 이어진다고 본다. (1606)
- 사소한 사회적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일탈을 초래한다고 본다. (1609)

(5) 갈등 이론 (아직 정답 선지로는 나온 적 없음)

- 경제 구조의 특성과 그로 인한 계급 간 갈등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1411)
-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그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1609)
-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강조한다. (1706)
-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1811)
- 대립하는 집단 간 갈등의 해소를 일탈의 대책으로 본다. (1909)
-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2006)

사문 3단원 선지 정리

문화의 이해

1. 문화의 의미

(1) 좁은 의미의 문화 : 발전되고 세련된 것처럼 특정 의미만 나타냄, 문화에 대한 평가적 의미가 내포
- 문화 시설 (1511), 문화인 (1706)

(2) 넓은 의미의 문화 : 생활 양식의 전체를 의미함

- 장례 문화 (1506), 음식 문화 (1509), 혼인 문화 (1511), 인사 문화 (1606), 이민자 집단의 문화 (1706), 건축 문화 (1911), 문화적 환경 (2009), 청소년의 언어 문화 (2009), 문화적 환경 (2009), 대중문화 (2011)

2. 문화의 구성 요소

(1) 물질문화

- 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술이나 도구에 해당하는 문화 요소이다. (1506)
- 문화 요소 중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술'에 해당한다. (1606)
- 빨간 김치 (1509), 요리 (1706), 기술 (1911), 정보 통신 기술 (2009), 편집 기술 (2011)

(2) 비물질문화

- 사회 구성원이 지닌 태도나 신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문화 요소에 해당한다. (1509)
- 제도문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문화 요소 (1511)
- 고인의 가족과 화해하는 의식 (1506), 인사법 (1606), 주술 (1606), 음악 (1706), 예술 (1911), 은어와 속어 (2009), 법 제도 (2011)

3. 문화의 속성

1) 공유성 → 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를 제시하면 대부분 공유성이 존재함

-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무더기 탑을 지날 때 돌 하나를 엮는 이유를 외국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1406)
-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 단어의 첫음절만을 이용하여 만든 줄임말의 의미를 기성세대는 알지 못한다.' (1406)
- 문화는 구성원 간에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해 준다. (1406)
- '우리나라 청소년 특유의 언어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 간 이해 양상의 차이' (1411)
-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향유하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 준다. (1506)
- '우리나라 사람은 밥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김치를 찾는다.' (1509)

- 문화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611)
- “노약자석에 앉아도 임신부 카드 덕분에 오해받지 않겠네.” (1611)
- 문화는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예측하게 한다. (1709)
-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면 어색함을 느낄 것이다. (1906)
-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게 해준다. (1909)
- 문화는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된다. (2006)
- 기성 세대가 청소년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줄임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2011)

2) 학습성

-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1409)
-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사고방식 차이 비교’ (1411)
- ‘결혼 이주 여성의 거주 지역별 사투리 사용 실태’ (1411)
- ‘어릴 때부터 우리 입맛이 김치에 익숙해졌기 때문’ (1509)
- 문화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됨을 보여 준다. (1509)
-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711)
-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1809)
- 개인의 사회적 행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2009)
- 재외동포 2세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한국어를 몰라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경험하는 사례 (2011)

3) 축적성

- 문화는 경험과 상징을 통해 세대 간에 전승되고 축적된다. (1406)
-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이 복잡해지고 풍부해진 과정’ (1411)
- 인류 문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1411)
- 후대에 문화가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 (1609)
-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해짐을 보여 준다. (1611)
- 문화는 상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계승된다. (1709)
- 전승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1711)
- 문화가 계승되고 발전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1906)
-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진다. (2006)

4) 전체성

- 문화는 부분들이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1406)
- 하나의 전체 속에서 다른 것들과 관련을 맺으며 존재한다. (1409)
- ‘조선 시대의 음식에 영향을 준 당시의 유교 문화와 농경 문화’ (1411)
- 문화 요소들의 연쇄적인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1411)
- ‘~ 관련이 깊다’ (1606)
-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이다. (1606)
- 문화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문화 요소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1606)
- 한 부분의 변동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킨다. (1609)

- 문화의 각 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1611)
-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에 연쇄적 변화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1906)
-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2006)

5) 변동성

- 문화는 기존 요소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요소가 만들어지며 변화한다. (1406)
-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특성이 소멸되기도 한다. (1409)
- ‘김치를 담그는 데 고춧가루가 양념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김치를 먹게 되었다.’ (1509)
- 기존의 문화 요소가 소멸되거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나기도 함을 보여 준다. (1611)
- “내가 임신했을 때는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게 생겼네.” (1611)
- 문화는 정적인 상태로 머물지 않고 발전하거나 퇴보한다. (1809)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함을 보여 준다. (1906)
-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변화함을 보여 준다. (1909)
-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2006)

6) 문화의 속성과 관련 없는 선지 (문화의 특성)

- 문화는 환경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공통성을 갖는다. (1406) → 보편성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 이해 태도

1.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1) 총체론적 관점

-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 (1406)
- 특정 문화 요소를 그 사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1406)
- 문화를 부분이 아닌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 (1409)
-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1611)
- 문화가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1709)
- '자연 환경, 관습, 정치 제도 등 다양한 문화 요소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연구' (1911)
- 문화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1911)

(2) 비교론적 관점

- 다른 문화를 거울로 삼아 자기 문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1406)
- 자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1409)
- 여러 문화를 비교하면서 공유되는 보편성을 파악해야 한다. (1409)
- 자문화의 특징을 타 문화와 비교하여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1509)
- 문화의 보편성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둔다. (1509)
- 다른 문화를 거울삼아 자기 문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1511)
- 보편적 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특정 문화 현상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한다. (1511)
- 문화 간 비교를 통해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1911)

(3) 상대론적 관점

- 각각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관습은 그 사회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1409)
-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 속에서 문화를 파악해야 한다. (1409)
- 모든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1709)
-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 (1911)
-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1911)
-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문화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1911)

2. 문화 이해 태도

(1) 문화 사대주의

- 다른 문화를 우월하게 보고 자기 문화의 가치를 평가 절하한다. (1506)
- 타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문화 중심주의에 비해 수용적이다. (1609)
- '외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 풍조' (1609)
-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1809)
-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811)
- 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1906)
- 자문화의 고유성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 (2006)

(2) 자문화 중심주의

- 자기 문화의 관점을 내세워 다른 문화가 지닌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1506)
- 자기 문화의 주체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 (1506)
- '연장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외국인을 보고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것' (1609)
-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1706)
-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 (1806)
- 자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806)
-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811)
-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1906)
-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2006)
-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2006)
- 자문화와 다른 사회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006)

(3) 문화 상대주의 (상대론적 관점)

- 해당 문화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1506)
-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1506)
- 문화의 다양성 신장을 위해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 (1609)
- '외국의 특정 음식에 대해 거부감은 있지만 그들의 생활양식으로 이해하는 것' (1609)
-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다. (1609)
-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1809)
- 문화를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 파악한다. (1809)
-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1811)
-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1811)
-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다. (1906)
- 각 사회의 문화가 형성된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중시한다. (2006)

(4) 절대론적 관점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의 공통점)

-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1506)
-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1809)
-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1906)
-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1906)
-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본다. (1909)

*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모두 인정하는 태도

하위문화와 대중문화

1. 하위문화

(1) 전체 문화의 특징

-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이기도 한다. (1411)
- 한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 (1709)
-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 공통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1811)
-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1811)

(2) 하위문화의 특징 (반문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1411)
- 지배 집단에 의해 일탈 문화로 규정되기도 한다. (1411)
- 전체 문화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1411)
- 해당 집단 구성원의 욕구 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1411)
-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문화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1611)
-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되는 생활양식 (1709)
- 하위문화의 총합으로 전체 문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1709)
-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1709)
-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하위문화가 전체 문화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1709)
- 사회 변화에 따라 전체 문화가 되기도 한다. (1709)
- 하위 문화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적이다. (1806)
- 사회 변동에 기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1806)
- 한 사회에서 문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409)
- 전체 문화와 다른 독특한 가치와 규범을 갖기도 한다. (1409)
- 하위문화는 전체 문화와 공존이 가능하다. (1809)
-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 공통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1811)
- 전체 문화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1606)

(3) 반문화의 특징

- 하위문화 중에서 지배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 (1709)
- 기존 문화에 저항하는 특징을 보인다. (1806)
- 주류 문화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1606)

2. 대중 매체의 유형

- ① 대중 매체의 등장 순서: 인쇄 매체 → 음성 매체 → 영상 매체 → 뉴미디어
- ② 정보 전달의 비동시성이 나타나는 대중 매체 (제공): 인쇄 매체
- ③ 정보 수용의 비동시성이 나타나는 대중 매체 (소비): 인쇄 매체, 뉴미디어
- ④ 청각 정보가 없는 매체: 인쇄 매체 / 시각 정보가 없는 매체: 음성 매체
- ⑤ 전통적 대중 매체: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1) 인쇄 매체 (잡지, 책, 서적)

- 정보의 전달이 일방적이다. (1409)
- 정보의 심층성이 가장 높다. (1909)
-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가장 낮다. (1909)
- 문맹자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1909)
-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가장 크다. (1611)

(2) 음성 매체 (라디오)

- 정보의 전달이 일방적이다. (1409)
- 청각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 (1809)

(3) 영상 매체 (TV)

- 정보의 전달이 일방적이다. (1409)
- 인쇄 매체에 비해 정보 전달의 동시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 (1409)
- 인쇄 매체에 비해 사용자의 범위가 넓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1409)
- 인쇄 매체보다 생동감 있는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 (1709)
- 수용자별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 나타난다. (1709)
- 복합 감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1906)
- 인쇄 매체에 비해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높다. (1906)
- 시청각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2006)
- 정보에 대한 문맹자의 접근 가능성이 인쇄 매체에 비해 높다. (2006)

(4) 뉴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 SNS)

- 정보 수용자도 정보를 생산한다. (1409)
- 인쇄 매체에 비해 사용자의 범위가 넓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1409)
-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 작용성이 뛰어나다. (1409)
- 다른 대중 매체에 비해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이 높다. (1709)
- 영상 매체에 비해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의 용이성이 높다. (1709)
- 다른 대중 매체에 비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1709)
- 복합 감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1906)
- 영상 매체에 비해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이 높다. (1906)
- 시청각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2006)
- 정보 전달의 속도가 인쇄 매체에 비해 높다. (1711)
-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영향력이 가장 높다. (1506)
- 정보 획득 시 사용 가능한 감각의 다양성이 인쇄 매체에 비해 크다. (1811)
- 정보 사회에서 지배적인 매체이다. (1609)
-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이 가장 낮다. (1911)

문화의 변동

1. 문화 변동의 요인 - 모두 문화 지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1811)

(1) 내재적 요인

(1-1) 발명

-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만들어 자국 내 지식 보급에 기여한 사례 (1509)
- 한글을 창제하여 비로소 우리 고유의 글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1511)
- '전통적으로 계승된 온돌의 원리를 활용하여 현대식 바닥 난방 장치를 만든 것' (1511)
-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었다. (1711)
-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자국의 첨단 매체 발달에 기여한 사례 (1806)
- 기존에 없었던 문화 요소가 창조된다. (2009)

(1-2) 발견

- 말안장 밑에 고기 조각을 넣고 말을 달리면 말안장의 충격으로 고기가 부드럽게 다져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809)
- 존재했으나 알려지지 않은 문화 요소를 찾아낸 것이다. (1909)

(2) 외재적 요인

- 서양 의료 기기를 도입했다. (1406)
- 타 문화와의 접촉으로 발생한다. (2009)

(2-1) 직접 전파

- 이주민에 의한 문화 전파 (1411)
-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에 한자가 전래되었다. (1511)
- A국 왕실이 주도한 정략혼인을 통해 A국 왕실 문화가 B국 왕실로 전래되었다. (1609)
- 사람들의 왕래 (1609)
- 자국을 식민 지배한 나라의 언어와 자국의 전통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1806)
- 이웃 나라의 특정 음료가 교역을 통해 들어왔다. (1806)
- 자국의 제빵사를 데려오면서 크루아상이 프랑스에 널리 전해졌다. (2011)

(2-2) 간접 전파

- 한국의 대중 음악이 인터넷을 통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1411)
- 한류 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난 사례 (1509)
- 문화 요소의 전달이 매개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1806)
- 상호 인적 교류가 없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간접 전파를 통한 문화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1811)
- 사람 이외의 매체에 의해 문화 요소가 전달된다. (1909)

(2-3) 자극 전파 (전파+발명)

- 다른 나라 기성 종교의 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신흥 종교를 창시함 (1509)
-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표기하는 이두를 만들었다. (1511)
- 외래문화 요소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 (1611)
- 타 문화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다. (1706)
- A국은 갑국과의 교류를 통해 갑국의 문자를 모방한 새로운 문자를 만들. (1709)
- C국은 A국의 '활'을 활용하여 현악기를 개발하였다. (1709)
- 다른 나라의 종교 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만든 신흥 종교 (1806)

2. 문화 변동의 양상

(1) 문화 동화 ($A + B = A$)

- 국민들은 과거에 행했던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서양 의학에 의존하게 되었다. (1406)
-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하였다. (1806)
- 신흥 종교가 기존 종교를 대체한 사례 (1806)

(2) 문화 공존(병존) ($A + B = A, B$)

- 한국에서 전통 시장과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이 자리 잡은 것 (1606)
-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다. (1806)
-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하였다. (1806)
- 자국을 식민 지배한 나라의 언어와 자국의 전통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1806)
- 이웃 나라의 특정 음료가 자국민이 즐겨 마시는 음료 중 하나가 되었다. (1806)
- 개량 의복과 서구 의복의 혼재 (1911)
- 주변국의 음식 및 조리법 도입으로 전통식과 외래식 혼재 (1911)
- 서로 다른 문화가 한 문화 체계 안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 (2006)

(3) 문화 융합 ($A + B = C$)

- 서양의 결혼 예식과 전통 폐백 의례가 결합된 현재 한국의 결혼식 (1606)
- A국의 요리법과 B국의 요리 재료가 결합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냈다. (1609)
- △△국에서 전통적인 온돌 문화와 외래의 침대 문화가 혼합된 돌침대가 만들어짐 (1611)
-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다. (1806)
- 라이스 버거 (밥+버거)와 같은 새로운 메뉴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1809)
- 전통 의복을 서구식으로 개량한 새로운 의복 등장 (1911)
-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이 결합된 새로운 음식 등장 (1911)
- 온돌을 사용하던 우리나라의 난방 방식과 서양식 주거 문화의 실용적 요소가 접목되어 바닥 난방식 아파트가 만들어짐 (2006)
- 우리나라에 고추가 유입되어 백김치 대신 빨간 김치가 보편화됨 (2006)
- '바인 미'가 바게트에 베트남 고유의 음식으로 속을 채워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인 먹거리로 변화하였다. (2011)

3. 문화 접변의 유형 : 외래문화의 자발적 수용 여부가 구분 기준이 됨

(1) 강제적 문화 접변

- 정복을 통한 문화 이식 정책 (1506)
- 정복 (1709)
- 식민지 시절 (2011)

(2) 자발적 문화 접변

-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 변동 (1411)
-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511)

사문 4단원 선지 정리

사회 불평등 현상과 계층

〈Comment〉

- 1) 최근에 〈계급론에 따른 구분〉과 〈계층론에 따른 구분〉을 비교하는 유사 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 문제는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게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문제에서 표가 아닌 줄글 설명을 제공한다면, 꼭 빈 공간에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유사 표를 그려야 한다.

1.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1) 계급론

- 경제 결정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1409)
- 사회·정치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1409)
-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 계층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 (1509)
- 계층화 현상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전제하지 않음 (1509)
- 계층을 일원론적 관점에서 구분함 (1511)
-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권력 관계가 결정된다. (1609)
- 계층론에 비해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 귀속 의식을 중요하게 파악한다. (1609)
-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구성원 간의 적대감이 강하다고 본다. (1611)
-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1706)
- 계층론에 비해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기반한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 (1711)
- 이분화된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1711)
- 중간 계급의 존재를 부정한다. (1806)
- 경제적 위치에 따른 집단 내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1806)
-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인 위계화로 파악한다. (1809)
-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강한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1811)
- 계층 간 수직 이동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 (1906)
-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본다. (1911)
- 사회 계층화 현상의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한다. (1911)

(2) 계층론

- 경제적 차원인 계급, 사회적 차원인 신분, 권력적 차원인 파당의 세 가지 차원을 같이 고려하여 사회 불평등을 설명한다. (1409)
-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종합하여 사회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 (1509)
- 자유로운 사회 이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1509)
- 경제적 계급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지위 집단에 소속될 수 있다고 본다. (1609)
- 계급론에 비해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1611)
-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정치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요인도 포함] (1611)
- 다차원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한다. (1706)
-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1711)
- 사회 불평등에서 위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원적이다. (1806)
- 사회 불평등 현상을 다원론적 관점으로 본다. (1809)
-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한다. (1811)
- 한 사람의 지위가 계층화의 여러 차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1906)
- 현대 사회의 다양한 계층 분화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1911)

(3) 계급론과 계층론의 공통점

-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본다. (1409)
-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다고 본다. (1511)
- 모두 경제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1706)
-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1711)
-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 (1809)

(4) 오답 선지

- 사회 계층화 현상에서 귀속적 요인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 갈등론 (1911)

2.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

(1) 기능론적 관점

- 차등적인 보상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1406)
- 직업의 중요성이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1406)
- 사회 계층화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1406)
- 사회 계층화 현상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한다. (1406)
- 이주 노동자의 재사회화를 강조한다. (1406)
- 내국인과 이주 노동자의 통합을 강조한다. (1406)
- 직업 간에 발생하는 보수의 차이는 그 직업이 갖는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1411)
- 균등 분배는 사회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저해한다. (1411)
- 차등 분배는 기존 질서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한다. (1411)
- 균등 분배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1411)
- 차등 분배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제이다. (1411)
-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1506)
- 개인의 성취동기가 지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1506)
- 희소가치의 배분 방식은 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1506)
- 자녀의 노력 수준과 계층 이동 가능성 간의 관계가 비례 관계이다. (1709)
- 희소가치가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분배된다고 본다. (1709)
- 희소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질수록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1709)
- 개인의 성취동기와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1709)
-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 사이가 무관하다고 본다. (1709)
-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1911)
-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는 중요도에 따른 위계 체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1911)

(2) 갈등론적 관점

-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이 불공정하다고 본다. (1406)
- 사회가 기득권층의 지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고 본다. (1406)
- 희소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강조한다. (1406)
- 희소가치의 배분 방식은 권력 유지를 위한 기득권 집단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1506)
- 자녀의 노력 수준과 계층 이동 가능성 간의 **관계는 무관하다**. (1709)
-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과 사회 갈등 정도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1709)
-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1709)
-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이지만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1911)
-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 관계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한다. (1911)

(3)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

- 이주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거시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1406)

사회 불평등 양상

1. 빈곤 유형

(1) 절대적 빈곤

-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611)
-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이 심각하게 박탈된 상태에 있는 계층이 빈곤층으로 정의된다. (1611)
-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최저 생계비를 활용한다. (1906)
-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1909)

(2) 상대적 빈곤

- 사회 구성원이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박탈 상태에 처한 경우 (1611)
-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대비하여 낮은 소득 수준의 계층이 빈곤층으로 정의된다. (1611)
-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사람이라도 빈곤층에 포함될 수 있다. (1611)
-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원이나 소득이 결핍되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중위 소득의 50%를 활용한다. (1906)
- 해당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파악한다. (1909)

(3)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공통점

-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빈곤층은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1611)
-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1906)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다. (2011)

(4) 오답 선지

-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을 더한 것이 그 나라의 전체 빈곤율이 된다. (1611)
- 절대적 (상대적) 빈곤은 개인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1906)
- 절대적 (상대적) 빈곤은 실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상태를 의미한다. (1909)
-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2006)
- 상대적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는 절대적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

(5) 기타 계산 관련 선지

- 우리나라에서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2006)

2. 사회적 소수자 : 선지를 외우기보다는, 제시문을 제대로 읽어서 푸는 것이 훨씬 낫다.

(1) 정답 선지

-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1411)
- 특정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가 다른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닐 수 있다. (1506)
- 특정 집단이 주류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1506)
-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기준은 상대적이다. (1706)

(2) 오답 선지

- 사회적 소수자는 집단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1506)
- 사회적 소수자는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집단이다. (1706)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Comment〉 3가지를 비교하는 유형이므로, 3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

<p>1) 국민연금 (사회 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노령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1906)
<p>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회 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은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음 (2009)
<p>3)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공공 부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1811)
<p>4) 기초 연금 (공공 부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1906)
<p>5) 사회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선정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보건 서비스 연계·조정, 생활 교육 지원 등을 하는 제도 (1906)

* 수혜 대상자의 범위: 사회 보험 > (사회 서비스) > 공공 부조

** 소득 재분배의 효과: 공공 부조 > 사회 보험 > (사회 서비스)

(1) 사회 보험 : 국민연금 제도, 실업 급여 (고용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국가와 제도 대상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1406)
- 대상자가 수혜 정도가 아닌 소득 정도에 따라 부담한다. (1506)
-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1506)
-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506)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1509)
-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1911)
-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1911)
-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1911)

(2) 공공 부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 공공 부조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선정하는 것이다. (1406)
-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1509)
-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1509)
- 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511)
- 사회 보험에 비해 빈곤층 자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1711)
-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1911)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1911)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911)
-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2009)

(3) 사회 서비스

-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1409) →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소득 재분배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발생한다.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능력이 되는 수혜자가 부담한다. (1511)
-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1911)
- 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1806)
- 민간단체를 통해 운영되기도 한다.

(4)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공통점

-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1506)

(5) 오답 선지

- A 사회 보장 제도와 B 사회 보장 제도의 대상자는 중복될 수 없다. (1911)

사문 5단원 선지 정리

사회 변동 이론

〈Comment〉

1)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 (근대화론, 종속이론)이 교과 과정에서 빠지고, 사회 운동이 교과 과정에 추가되었다.

(1) 진화론

- 인간 사회는 원시적, 중간적, 근대적 사회로 변해 왔다. (1406)
- 사회가 항상 진보한다고 본다. (1406)
- 사회 변동을 발전으로 인식한다. (1406)
- 사회 변동의 유형이 사회마다 동일하다고 본다. (1506)
- 사회 변동에 의해 사회가 더 복잡하게 분화한다고 본다. (1506)
-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06)
- 사회 변동이 곧 발전이나 진보를 의미한다고 본다. (1506)
- 사회 변동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1606)
-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1511)
- 모든 발전은 곧 서구화임을 전제로 하여 제국주의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1606)
- 인류 사회는 사회 변동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진보해왔다. 방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진보한다는 것은 새롭고 보다 나은 문명의 사회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1806)
- 사회 변동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멸망을 설명하기 어렵다. (1806)
- 모든 문명은 완전성을 지향하는 시대정신을 향해 동일한 변동 과정을 밟는다. (1809)
-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집단 간 결합이 양적, 질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1811)
-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811)
- 모든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1811)
- 서구 사회가 밟아 왔던 변동의 과정이 최선이라고 본다. (1811)
- 순환론에 비해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 적합하다. (1906)
-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2006)

(2) 순환론

- 문명도 생애 주기가 있어서, 일련의 발생과 성장 단계를 거쳐서 결국 몰락의 과정을 겪는다. (1406)
- 운명론적 시각을 갖는다. (1406)
- 과거의 사회 변동만을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06)
- 사회 변동이 일정한 양상을 반복하며 진행된다고 본다. (1606)
-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고 본다. (1706)
- 사회 변동은 단선적 발전 과정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1806)
-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관점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1806)
- 사회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 (1806)
-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1809)
- 인류 문명에서 개별 사회의 성장과 쇠퇴는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것이다. (1811)
-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통해 변동하는 것으로 본다. (1811)

(3) 진화론과 순환론의 공통점

- 사회 변동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1406)
-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1506)

* 오답 선지

<1> 기능론

- 사회 변동을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파악한다. (1806)
-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각 부분들이 조정되는 과정을 사회 변동으로 본다. (1809)
-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1809)

<2> 갈등론

- 사회 변동을 대립과 갈등이라는 속성으로만 파악한다. (1806)
-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1809)

농업 사회 vs 산업 사회 vs 정보 사회

〈Comment〉 : 자주 나오는 비교 기준에 따른 순서를 잘 파악하고 있길 바란다. 여러 번 복습하자.

(1) 농업 사회의 특징

-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며,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전인격적 관계가 지배적이다. (1911)

(2) 산업 사회의 특징

- 기술과 조직의 합리성 원리를 도입하여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경제 체제가 중심이 된다. (1911)
- 업무의 표준화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1711)

(3) 정보 사회의 특징

-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인간의 주요 활동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1911)
- 양방향 미디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이다. (1711)

1	소품종 대량 생산 비율	산 > 정 > 농
2	면대면 접촉의 비중 (비대면은 정반대)	농 > 산 > 정
3	관료제 조직의 비중	산 > 정 > 농
4	다품종 소량 생산 비율	정 > 산 > 농
5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	농 > 산 > 정
6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불분명한 정도	정 > 산 > 농
7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분리는 정반대)	농 > 정 > 산
8	전자 상거래 비중	정 > 산 > 농
9	기술 발전의 속도	정 > 산 > 농
10	의사 결정의 분산화 정도	정 > 산 > 농
11	지식 정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정 > 산 > 농
12	직업의 동질성 정도 (분화, 이질성은 정반대)	농 > 산 > 정
13	산업 구조의 고도화 정도	정 > 산 > 농
14	확대 가족의 비중	농 > 산 > 정
15	사회의 다원화 정도	정 > 산 > 농
16	정보 확산의 정도	정 > 산 > 농
17	3차 산업의 비중	정 > 산 > 농
18	2차 산업의 비중	산 > 정 > 농
19	핵가족의 비중	정 > 산 > 농
20	정보 격차 정도	정 > 산 > 농